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 직장(職場)에서 보상(補償)을 줄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제공(提供)한 사례(事例)이다. 괘주(卦主)가 직장의 잘못된 조작(操作)으로 인(因)해, 퇴직(退職)할 때가 되었다고 오인(誤認)하여 퇴직당했다. 현재(現在) 정상적(正常的)으로 출근(出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괘주는 직장에 보상을 요구(要求)하여,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병진일(丙辰日) 갑오시(甲午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지수사(地水師)가 뇌수해(雷水解)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丙辰日 甲午時

八卦

地水師(坎水宮) 之 雷水解(震木宮)

官庚戌 || 青父癸酉 || 應伏兄戊子空  
蓋馬月 害鬼乙花 帳馬災將

應父庚申 || 玄兄癸亥 || 伏官戊戌  
馬地 帳花劫喜乙己 蓋馬月

財庚午 | 白官癸丑空 | 伏父戊申  
將馬災 天花鞍 馬地

財戊午 || 蛇財戊午 || 世伏財戊午  
將馬災 將馬災 將馬災

世官戊辰 | 勾官戊辰 | 伏官戊辰  
馬月蓋 馬月蓋 馬月蓋

孫戊寅 || 朱孫戊寅 || 伏孫戊寅  
閏地馬 閏地馬 閏地馬

歸魂卦

卦身: 父申

空亡: 子丑

世身: 初爻

직장과 협상(協商) 후(後), 병가(病假)를 내는 것으로 하되 급여(給與)는 변동(變動)없이, 재직(在職) 중(中)인 것과 똑같이 출근하지 않고도 공짜로 급여(給與)를 2027년까지 받으며, 그리고 나서 정식(正式)으로 퇴직하기로 했다.

관귀(官鬼)로써 용신(用神)을 삼고, 처재(妻財) 및 괘의 조합(組合) 변화(變化)를 겸(兼)하여 본다. 관귀가 양현(兩現)하였으니, 발동(發動)한 효(爻) 관귀 축토(丑土)로써 용신을 삼고, 다른 하나의 관귀 진토(辰土)를 참고(參考)로 삼는다.

관귀 축토가 공망(空亡)이니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음을 표시(表示)하며, 처재로 화(化)

했으니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

이효(二爻) 관귀 진토는 월파(月破)이니 업무(業務)에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여 퇴직 시기를 잘못 보고(報告)한 것을 표시하나, 일(日)이 실파(實破)하니 잘못을 메운다.

축토가 공망이니, 2027년 정미년(丁未年)에 공망을 충(沖)하여 곧 실공(實空)하니, 정식으로 퇴직한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单位会给与补偿吗？（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给我的一个案例。卦主由于单位错误操作，误以为到了退休时间，被退休了。目前无法正常上班，卦主要求单位补偿，于癸卯年壬戌月丙辰日壬午时（旬空：子丑），得地水师之雷水解。

青龙 父母酉金”应  
 玄武 兄弟亥水”  
 白虎 官鬼丑土×            妻财午火  
 螣蛇 妻财午火”世  
 勾陈 官鬼辰土’  
 朱雀 子孙寅木”

单位协商后，以人休病假，工资不变，相当于在岗一样，不用上班，白拿工资到2027年，然后正式退休。

以官鬼为用神，兼看妻财，以及卦的组合变化。官鬼两现，以发动之爻官鬼丑土为用神，另外一个官鬼辰土做参考。

官鬼丑土空亡，表示不用工作，不用上班，化妻财，不上班，拿工资。

二爻官鬼辰土月破，表示工作出问题，报错退休时间了，但日实破，弥补错误。

丑土空亡，2027年丁未冲空则实，正式退休。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 귀곡자(鬼谷子): 천하(天下)의 기국(棋局)

#### 제37장 장의(張儀)의 결과(結果)

장의는 위국(魏國)에서 세상(世上)을 떠났다.

진혜문왕(秦惠文王)이 죽은 후(後), 진무왕(秦武王)이 즉위(卽位)했다. 새로운 군주(君主)는 장의를 싫어했고, 장의는 곧 진국(秦國)을 떠나 위국으로 돌아가 위국의 상국(相國)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任務)였다.

그가 죽은 날은 어느 겨울이었다. 큰 눈이 어지러이 날려 천지(天地)가 온통 아득했다.

그는 병상(病床)에 누워 창(窓)밖의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그 옛날 귀곡(鬼谷)에서 소진(蘇秦)과 함께 야단맞던 날들이 생각났다. 처음 초국(楚國)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반(半) 죽도록 맞아 관부(官府) 밖으로 내던져졌던 굴욕(屈辱)이 생각났다. 진국에서 한 걸음씩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過程)이 생각났다. 소진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을 때, 둘 다 취(醉)하여 탁자에 엎드려 잠들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그는 문득 웃음을 지었다.

“소진, 이 녀석,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나.”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멍해졌다.

들어온 사람은 거친 베옷을 입고 온몸에 진흙을 묻혔으며, 얼굴에는 먼 길을 고생(苦生)하며 걸어오느라 피폐(疲弊)한 기색(氣色)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如前)히 그렇게 빛났다.

“장의.”

“소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소진이 그의 침상 곁으로 걸어와 앉았다.

“네가 곧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보러 왔다.”

장의가 웃었다.

“이 녀석, 여전히 이 모양(模樣)이구나. 입만 살아가지고.”

소진도 웃었다.

창밖에는 눈이 갈수록 크게 내렸다.

두 사람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간(時間)이 흘렀는지 모를 때, 장의가 문득 입을 열었다.

“소진, 말해봐라, 우리 이번 일생(一生)이 값진 것이었냐, 그렇지 않냐?”

소진은 잠시(暫時) 침묵(沈默)하더니 말했다.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한 일에 대해 나는 후회(後悔)하지 않는다.”

장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너도 아니,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萬若) 그 옛날 우리 둘이 산을 내려오지 않고 줄곧 귀곡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

소진이 웃었다.

“네가 또 이 소리를 하는구나.”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장의도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또 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고, 얼굴에는 한 줄기 미소(微笑)가 걸려 있었다.  
“소진, 나를 보러 와줘서 고맙다.”  
소진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즈음, 장의의 손이 점점 식어갔다.  
소진은 그곳에 앉아 미동(微動)조차 하지 않았다.  
창(窗)밖의 눈은 갈수록 크게 내렸다.  
그날 밤, 소진은 홀로 장의의 영전(靈前)에 앉아 밤을 새웠다.  
날이 밝을 때 그는 몸을 일으켜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눈이 그쳤고 천지(天地)는 온통 하얗고 깨끗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큰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그 저택(邸宅)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第三十七章 张仪的结局

张仪是在魏国去世的。

秦惠文王死后，秦武王继位。新君不喜欢张仪，张仪便离开秦国，回到魏国，做了魏国的相国。

那是他最后一份差事。

他死的那天，是一个冬天。大雪纷飞，天地一片苍茫。

他躺在病榻上，望着窗外的雪，忽然想起了很多事。

想起当年在鬼谷，和苏秦一起挨骂的日子。想起第一次去楚国，被人打得半死扔出府外的屈辱。想起在秦国，一步步爬上来的艰辛。想起和苏秦最后一次喝酒，两人都喝醉了，趴在桌上睡着的那一晚。

他忽然笑了。

“苏秦，你这小子，不知道在哪儿呢。”

门外传来脚步声。

一个人走了进来。

他转过头，愣住了。

来人穿着粗布衣裳，满身泥污，脸上带着长途跋涉的疲惫。可那双眼睛，还是那么亮。

“张仪。”

“苏秦？”

两人对视着，久久无语。

苏秦走到他榻边，坐了下来。

“听说你快不行了，我来看看你。”

张仪笑了。

“你小子，还是这副德行。嘴上不饶人。”

苏秦也笑了。

窗外，雪越下越大。

两人谁也没有说话。

不知过了多久，张仪忽然开口。

“苏秦，你说，咱们这一辈子，值不值？”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苏秦沉默了一会儿，说：“不知道。反正我做的事，我不后悔。”

张仪点了点头。

“我也不后悔。”

他顿了顿，又说：“你知道吗，我有时候会想，要是当年我们俩没有下山，一直待在鬼谷，会是什么样？”

苏秦笑了。

“你又说这个。”

张仪也笑了。

“是啊，我又说这个。”

他闭上眼睛，脸上带着一丝笑容。

“苏秦，谢谢你来看我。”

苏秦握着他的手，没有说话。

不知过了多久，张仪的手，渐渐凉了。

苏秦坐在那里，一动不动。

窗外的雪，越下越大。

那天晚上，苏秦一个人在张仪的灵前坐了一夜。

天亮时，他站起身，走出门外。

雪停了，天地一片洁白。

他深吸一口气，大步向前走去。

身后，那座府邸渐渐远去。

他没有回头。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애견 사례(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 강아지의 가출(家出)

우리 집에는 예전에 키우던 작은 체구(體軀)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름은 치치였다. 처음에 녀석이 쓰레기장 근처(近處)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는 원래(原來) 두두라는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동무가 온 것을 보고 두두는 유독(唯獨) 기뻐했다. 아마도 타고난 천성(天性) 때문이었는지, 두두는 줄곧 이 작은 개를 유난히 아꼈으며 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음식(飲食)을 빼앗아 먹는 법(法)이 절대(絶大) 없었다. 매번(每番) 먹이를 줄 때마다 항상(恒常) 치치가 배불리 먹게 먼저 양보(讓步)한 뒤에야 자기가 천천히 먹기 시작(始作)했다. 평소(平素)에 밖에 나가 놀 때도 두두는 늘 치치의 곁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지켰다. 치치가 노는 데 정신(精神)이 팔려 집에 돌아오려 하지 않을 때도, 언제나 두두가 다정하게 녀석을 불러서 데려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가 외출(外出)하려고 마당 문을 열었다. 평상시(平常時) 같으면 치치가 항상(恒常) 가장 먼저 문 앞으로 돌진(突進)하며 기회(機會)를 보아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을 텐데, 그날은 유독 비정상적(非正常的)이었다. 문 앞까지 달려갔다 다시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호기심(好奇心)이 생겨 살펴보러 다가갔고, 비로소 치치가 언제 생겼는지 모를 새끼 강아지 다섯 마리를 몰래 낳았다는 사실(事實)을 발견(發見)했다.

당시(當時)는 마침 한겨울 추위라 날씨가 무척 추웠다. 우리는 서둘러 낡은 이불을 찾아다 개 집 안에 깔아주었고, 곁에는 가림막이 될 만한 것들을 잔뜩 더해 주어 녀석들이 찬 바람을 버텨내도록 도왔다. 그때부터 두두는 더 이상(以上) 집 안으로 들어가 자지 않고, 늘 묵묵(默默)히 집 문앞에 엮드려 수호(守護)하며 찬 바람을 막아주었고 냉기(冷氣)가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 중 두 마리가 결국 길을 잃고 사라졌다. 우리는 남은 어린 녀석들이 견디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치치와 새끼들을 함께 방(房)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방 안 온도(溫度)가 마당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채 한 달이 안 되어 남은 세 마리 새끼 강아지마저 모두 지켜내지 못했다. 외톨이가 된 치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 후(後) 우리는 녀석을 다시 마당의 개 집에서 지내게 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두두의 성격(性格)이 갑자기 변(變)했다. 때때로 치치와 으르렁거리며 치받고 싸워 치치를 온통 상처(傷處)투성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치치가 제 아기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책망(責望)하는 듯했다. 치치는 점차(漸次) 두두를 겁(怯)내고 무서워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치치를 방 안에 두고 생활(生活)하게 했다.

방 안에서 살게 되자 치치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便安)해졌는지 위층 아래층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무척 흥가분하게 지냈다.

한번은 내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책(冊)을 읽고 있었는데, 치치가 안방 문앞까지 걸어와 흠칫 눈치를 보며 방 안을 바라볼 뿐 감(敢)히 들어오지 못했다. 내가 다정(多情)한 소리로 이리오라고 손짓했는데, 뜻밖에도 치치가 내 뜻을 오해(誤解)하여 곧장 달려와 단숨에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내가 몇 번이고 내려가라는 시늉을 해도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안방 바닥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 주고 바닥에서 자게 하려 했으나 그것도 싫어했다. 나는 순간(瞬間) 마음이 조금

## 왕호응(王虎應) 애견 사례(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躁急)해져 녀석을 크게 꾸짖으며 침대 밑으로 쫓아냈다.

바로 그 순간, 치치가 나와 가족(家族)들을 돌아보는데 녀석의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원망(怨望)이 가득 차 있었다. 그 표정(表情)과 자태(姿態)가 너무나 사람 같아서 마음속에 묘한 감회(感懷)가 일었고, 미물(微物)에게도 이토록 섬세(纖細)한 감정(感情)이 있다는 것에 절로 감탄(感歎)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치치는 소리 소문(所聞) 없이 집을 떠났다. 온 가족이 사방(四方)으로 찾아 헤맸으나 아무런 흔적(痕跡)도 찾을 수 없어, 이제는 영영(永永) 못 찾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주일(一週日)이 지난 후, 이웃이 밖에서 녀석을 발견(發見)하고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이 일(事)을 겪은 뒤로 우리는 다시는 녀석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못했고, 이후(以後) 치치는 줄곧 우리 곁을 지키며 침대맡에서 함께 잠을 자고 동반자(同伴者)가 되어주었다.

그러다 훗날 어느 날, 장인(丈人)어른이 방에 놀러 오셨다가 치치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자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 하셨다. 깜짝 놀란 치치는 곧장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 이후(以後)로 치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는 녀석의 모습(貌襲)을 볼 수 없었다. **왕호응(王虎應) 웨이보(微博) 영상(映像)**

### 狗狗离家出走

我家曾经养过一只小体型的狗狗，名字叫琪琪。当初它在垃圾站附近流浪，我们心疼便把它带回了家。

家里原本就有一只大狗叫豆豆，看到来了新伙伴，豆豆格外欢喜。或许是天性使然，豆豆一直格外疼爱这只小狗，从来不会仗着自己体型大就争抢食物。每次喂食，都会先让琪琪吃饱，自己才会慢慢进食。平时出门玩耍，豆豆也总会寸步不离守着琪琪。琪琪贪玩不肯回家时，也都是豆豆温柔把它唤回来。

有天清晨，我们准备出门，推开院门。平日里琪琪总会第一个冲到门口，总想趁机往外跑，可那天它却格外反常，跑到门口又转身跑回了窝里。我们心生好奇，上前查看才发现，不知何时，琪琪悄悄生下了五只小奶狗。

当时正值寒冬腊月，天气特别冷。我们赶紧找来旧被褥铺进狗窝，又在外面加了不少遮挡的东西，帮它们抵御冷风。从那以后，豆豆再也不进窝里睡觉，总是静静趴在窝门口守护着，替窝里挡住寒风，不让冷气灌进去。

没过几天，刚出生的小奶狗还是走丢了两只。我们担心剩下的小家伙撑不住，就把琪琪和幼崽一起接回了屋内，屋里温度总归比院子里暖和不少。可让人惋惜的是，短短不到一个月，剩下三只小奶狗也没能留住。孤单的琪琪又变回了独自一只，之后我们便让它重新住回了院子的狗窝。

可就在这之后，豆豆的性子突然变了，时常和琪琪打闹撕扯，把琪琪弄得满身伤痕，仿佛在责怪它没能好好守护自己的宝宝。琪琪渐渐变得胆怯害怕豆豆，无奈之下，我们只好把琪琪留在屋内生活。

住进屋里后，琪琪反倒自在起来，楼上楼下随意走动，格外放松。

有一回，我靠在床头看书，琪琪走到卧室门口，怯生生望着屋里，不敢进来。我轻声招呼它过来，没想到琪琪会错了意，径直跑过来一下子跳到了床上。我再三示意它下来，它都不肯挪动。后来我在卧室地上铺好软毯子，想让它睡在地上，它也不愿意。我一时心急，便呵斥着把它赶下了床。

## 왕호응(王虎應) 애견 사례(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那一刻，琪琪回头望着我和家人，眼神里满是委屈和怨怼，神情神态格外像人，让人心里莫名发感慨，不由得让人感叹小动物也有这般细腻的情绪。  
第二天一早，琪琪就悄悄离开了家，全家人四处找寻都没有踪迹，本以为再也找不回来了。没想到一周之后，邻居在外发现了它，帮忙把琪琪送回了家。经历这件事后，我们再也舍不得呵斥责怪它，往后琪琪便一直陪着我们，一同睡在床边相伴。后来有一天，岳父来房间串门，看到琪琪卧在床上，当即拿起扫把想要驱赶。受了惊吓的琪琪立刻夺门跑了出去。  
从那以后，琪琪再也没有回来过，再也没见过它的身影。 [王虎应的微博视频](#)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 굴위산(崛圍山)의 푸른 소나무가 나뭇꾼을 구(求)하다

태원(太原) 북쪽 교외(郊外)의 굴위산은 송백(松柏)이 푸르고 울창(鬱蒼)하여 첩첩(疊疊)이 쌓인 산봉우리가 병풍(屏風)처럼 둘러서서 자고(自古)로 풍광(風光)이 수려(秀麗)했다. 산간(山間)에는 푸른 소나무가 범인(凡人)을 비호(庇護)해 준 따뜻한 전설(傳説)이 전(傳)해지는데, 이는 옛 태원 사람이라면 집집마다 모두 아는 산야(山野)의 민간(民間) 이야기이다.

옛날에 굴위산은 산림(山林)이 무성(茂盛)하여, 산(山) 아래 부락(部落)의 백성(百姓)들은 대부분(大部分) 산에 올라 땀감을 베고 약초(藥草)를 캐며 생계(生計)를 유지(維持)했다. 마을에 한 젊은 나뭇꾼이 살았는데, 어릴 때 부모(父母)를 모두 여의었고 위인(爲人)이 충후(忠厚)하고 성실(誠實)하며 심지(心地)가 선량(善良)했다. 그는 매일(每日) 홀로 산에 올라 땀감을 베면서도 어린 묘목(苗木)을 함부로 베지 않았고, 상처(傷處) 입은 조수(鳥獸)를 보면 정성(精誠)껏 구해주었으며, 이웃을 대(對)할 때는 더 욱 겸허(謙虛)하고 인의(仁義)로웠다.

어느 해 늦가을, 산속에 갑자기 폭설(暴雪)이 내리고 찬 바람이 뼈를 찢렸으며 산길은 미끄러워 걷기 어려웠다. 나뭇꾼은 겨울을 날 양식(糧食)을 모으기 위해 여전(如前)히 풍설(風雪)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 땀감을 베었다.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더니 큰 눈이 산을 봉쇄(封鎖)하고 광풍(狂風)이 휘몰아쳤다. 나뭇꾼은 발을 잘못 디더 미끄러지는 바람에 산속의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었다. 큰 눈이 겹겹이 몸을 덮어오고 찬 바람이 뺨속까지 시려오자, 그는 산들 옆에 몸을 웅크린 채 춥고 지쳐 거의 기절(氣絶)할 지경(地境)에 이르렀으니 눈앞에서 산중(山中)의 귀신(鬼神)이 될 처지(處地)였다.

막 위급(危急)한 순간(瞬間)을 맞이했을 때, 산속에 군락(群落)을 이룬 푸른 소나무들이 문득 가지와 잎을 흔들더니, 겹겹이 쌓인 소나무 가지들이 안쪽으로 모여 들었다.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청록색(靑綠色) 우산(雨傘)을 펼쳐 놓은 듯하여, 매서운 풍설을 단단히 막아내며 나뭇꾼을 위해 엄한(嚴寒)을 차단(遮斷)해 주었다. 동시에 소나무 가지에서 따스한 이슬방울이 떨어져 혼미(昏迷)해진 나뭇꾼을 깨웠다.

나뭇꾼이 서서히 소생(蘇生)하여 자신(自身)을 둘러싼 푸른 소나무들을 바라보고는, 순간 산속의 영목(靈木)이 구해주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푸른 소나무의 비호에 의지(依支)하여 추운 밤을 버텼고, 이튿날 날이 밝아 풍설이 흩어지자 무사(無事)히 산을 내려왔다. 이 일 이후(以後)로 나뭇꾼은 산림(山林)을 더욱 경외(敬畏)하고 평생(平生)토록 초목(草木)을 아꼈으며, 결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았다.

현지(現地) 백성(百姓)들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너도나도 산림(山林) 영물(靈物)의 선량함에 감복(感服)했다. 천백 년(千百年) 이래(以來)로 굴위산의 푸른 소나무는 여전히 무성(茂盛)하고 이 이야기 또한 대대(代代)로 전해 내려오며 세상(世上) 사람들에게 경계(警戒)하고 있다. 마음속에 선량함을 품으면, 만물(萬物)이 모두 온화(溫和)하게 대해 줄 것이라고 말이다.

#### 崛围山青松救樵夫

太原北郊的崛围山松柏苍翠、层峦叠嶂，自古风光秀丽，山间流传着青松庇佑凡人的暖心传说，是老太原家喻户晓的山野民间故事。

古时候，崛围山山林茂密，山下村落的百姓大多依靠上山砍柴、采药谋生。村里有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个年轻樵夫，自幼父母双亡，为人忠厚老实，心地善良。他每日独自上山砍柴，从不滥伐幼苗，遇见受伤的鸟兽便悉心救助，对待邻里更是谦和仁义。

一年深秋，山间突降暴雪，寒风刺骨，山路湿滑难行。樵夫为了攒够过冬粮食，依旧冒着风雪上山砍柴。天色快速变暗，大雪封山，狂风呼啸，樵夫不慎脚下打滑，摔落在山间陡坡，腿脚受伤无法行走。大雪层层覆盖身体，寒风刺骨，他蜷缩在山石旁，又冷又累，几乎晕厥，眼看就要冻死在山中。

就在危急之际，山间成片的青松忽然摆动枝叶，层层叠叠的松枝向内聚拢，交织在一起，如同撑开巨大的青绿色伞盖，牢牢挡住凛冽风雪，为樵夫隔绝了严寒。同时松枝滴落温润露水，唤醒了昏迷的樵夫。

樵夫缓缓苏醒，看着环绕自己的青松，瞬间明白是山间灵木相救。

他靠着青松庇护熬过寒夜，第二日天亮风雪散去，顺利下山。此后樵夫更加敬畏山林，终生爱护草木，从不乱砍树木。

当地百姓听闻此事，纷纷感念山林灵物的善良。千百年来，崛围山青松繁茂依旧，这个故事也代代流传，告诫世人：心存良善，万物皆会温柔相待。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 《추명서(推命書)》12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두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门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间(约1818

年)刊行的首部系统译介中国四柱推命的专著，以徐升《渊海子平》为底本，采用和刻线装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献，同时因作者非专精命理，存在翻译精度与体系适配的历史局限。

学术脉络：江户中期中国四柱推命传入日本，櫻田虎门结合自身儒易与五行学积累，完成首部系统译介，首次将“断易”命名为“五行易”，为后续日本推命学发展奠定术语基础。

历史意义：是日本推命学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连载之十二。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7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